



군종주보

2022년 6월 19일(제1093호) 지극히 기뻐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발행 : 군종교구 홍보국 | 전화 : 02)749-1921, 02)900-7756 | FAX : 02)790-5768 | http://www.gunjong.or.kr | email : hongbo@gunjong.or.kr

말씀

“그리스도의 향기”

옛날 콤포트 지방에 위대한 수도자 한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이분이 제일 유명했던 것은 매일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을 따로 만나고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참 많았습니다. 하루는 스승이 기도를 하고 나오자 제자들이 물려와서 말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다시 제단 앞으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준단다. 몇 날 몇 시에 어디까지 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좋아서 그날만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됐고 아침 일찍부터 제자들이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출발했습니다. 저녁때쯤이 되자 제자들이 하나둘 돌아오는 걸 보는데 제자들 표정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마지막 제자 한 명을 남기고 다른 제자들이 다 들어오자 스승이 예수님은 잘 만나고 왔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거짓말하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못 보고 온갖 거짓들이 예수님 만나러 가는 길에 방해만 해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기다린다고 하니까 열른 목적지로 가야 하니 얼마나 마음이 바빴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서둘러서 가고 있는데 거짓들이 와서 수사님들 옷 좀 달라, 돈 좀 달라 그러니까 귀찮았겠지요. 성질은 더 나고요. 그렇게 고생고생해서 목적지에 갔는데 아무도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막 그렇게 불평하고 있는데 막내 제자가 돌아왔습니다. 너무 환하게 웃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선배들은 자기들은 거짓밖에 못 봤다고 했는데 막내만 만나고 온 것입니다. 막내가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너무 심한 악취가 나는 거지가 다가와서 빵을 좀 달라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나랑 비슷한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제발 빵 좀 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인상을 찌푸렸는데, 그래도 어떻게 암만 바빠도 이 배고픈 사람을 모른 채 하고 지나갈 수가 없어서 빵을 나누어 주었는데, 그 순간에 이 사람에게서 났던 악취가 확 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러고 다른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아침 미사 때 모셨던 성체의 냄새가 확 났다고 합니다. 다른 선배들은 막 바쁘게 떠날 때 막내는 스승과 함께 미사를 마치고 출발하는

라 늦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거지를 보니까 그 배고팠던 사람이 예수님이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네가 나와 같은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도 너를 알아볼 수 있었고, 너도 나를 지나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날 스승님하고 막내 제자만 환하게 웃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매일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면서도 목적지만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 성당을 나오고 기도를 해도 예수님도 못 보고 목적지에도 도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은 늘 우리 주변에 있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의 모습으로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은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사람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신성한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우리는 믿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서도 예수님 냄새가 좀 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먹고 마셨고 또 잘 소화시켰다면 우리 안에서 예수님 냄새가 나야 합니다. 성체를 모시고도 예수님이 아닌 다른 냄새가 난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체를 온전히 모시고 있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다른 이들이 우리가 풍기는 예수님 냄새를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고, 또 그분에 대한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겠지요. 예수님을 매번 모시면서도, 다른 음식들처럼 뒤로 내보내고, 양치하고 나면 잊어버리듯 대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체를 모시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우리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먹혀야만 한다는 것, 그렇게 예수님의 향기를 전해줄 수 있는 한 주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김부수(프란치스코) 신부
회령(제1171통사단) 성당 주임

제 1 독 시 회 답 송 제 2 독 시 부 속 기

창세 14,18-20
◎ 멜키체덱과 같이 너는 영원한 사제로다.

1코린 11,23-26
천사의빵 길손음식 자녀들의 참된음식 개에게는 주지마라.
이사악과 파스카양 선조들이 먹은만나 이성사의 예표로다.
참된음식 착한목자 주예수님 저희에게 크신자비 베푸소서.
저희먹어 기르시고 생명의땅 이끄시어 영생행복 보이소서.
전지전능 주예수님 이세상에 죽을인생 저세상에 들이시어,
하늘시민 되게하고 주님밥상 함께앉는 상속자로 만드소서.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 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

복 음 영 성 제 송

루카 9,11ㄴ-17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르리라.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스펀헨 빈째 시한(마지막 회유문)

(옥중에서, 1846년 8월 말)

교우들 보아라.

우리 벗아! 생각하고 생각할지어다.

천주께서 무시지시(無始之時)로부터 천지 만물을 배설(配設)하시고, 그중에 우리 사람을 당신 모상(模像)과 같이 내어 세상에 두신 위자(爲者, 즉 창조주)와 그 뜻을 생각할지어다.

온갖 세상일을 가만히 생각하면 가련하고 슬픈 일이 많다. 이 같은 험하고 가련한 세상에 한 번 나서 우리를 내신 임자를 알지 못하면 난 보람이 없고, 있어 쓸데없고, 비록 주은(主恩)으로 세상에 나고 주은으로 영세 입교하여 주의 제자 되니, 이름이 또한 귀하거니와 실이 없으면 이름이 무엇에 쓰며, 세상에 나 입교한 효험(效驗)이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배주배은(背主背恩)하니, 주의 은혜만 입고 주께 득죄(得罪)하면 아니 남과 어찌 같으리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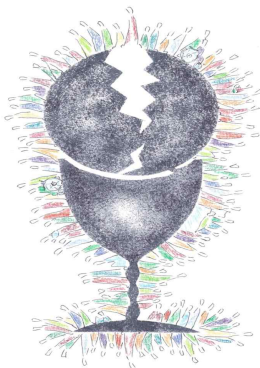
밭을 심는 농부를 보건대, 때를 맞추어 밭을 갈고 거름을 넣고, 더위에 신고(辛苦)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아름다운 씨를 가꾸어, 밭 거들 때에 이르러 곡식이 잘되고 엷글면, 마음의 땀낸 수고를 잊고 오히려 즐기며 춤추며 흠복(欽服)할 것이요, 곡식이 엷글지 아니하고 밭 거들 때에 빈 대와 꺾질만 있으면, 주인이 땀낸 수고를 생각하고 오히려 그 밭에 거름내고 들인 공부로써 그 밭을 박대하나니, 이같이 주께서 땅을 밭을 삼으시고 우리 사람으로 벼를 삼아, 은총으로 거름을 삼으시고 강생 구속(降生救贖)하여 피로 우리를 물 주사 자라고 엷글도록 하여 계시니, 심판날 거두기에 이르러 은혜를 받아 엷근 자 되었으면 주의 의자(義子)로 천국을 누릴 것이요, 만일 엷글지 못하였으면 주의 의자로서 원수가 되어 영원히 마땅한 벌을 받으리라. <다음 주에 계속>

『성 김대건 인드레이 신부의 시한』 발췌, 성 김대건 신부 순교 150주년 기념 전기 자료집 제1집, 한국교회사연구소, 1996

복 음 록 상

- 배영길(베드로) 신부 / 예수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렇게 우리는
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아멘."

그렇게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의 빵으로.

상화이야기

성체성사의 신비



푸스 반 콘트
(1460년 ~ 1480년에
몰약함, 정확한 생년
월일 미상)
1473년 ~ 1475년 작
나무 위 유화,
331x335cm
우르비노 중앙미술관,
이탈리아

교회의 내부에서 예수님이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성체를 나누어주는 장면을 그림 이 그림은, 성체성사를 가장 잘 표현한 그림 중 하나로도 알려져 있다. 그림의 오른쪽에는 이 그림의 후원자인 페데리코 공작과 그의 신하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것은 성체성사의 신비는 시대와 장소 및 신분의 귀천(페데리코 공작은 용병 출신으로 자수성가한 인물이다)을 불문한다는 뜻이 숨겨져 있다.

오른쪽의 기둥들 사이에, 페데리코 공작의 외아들인 귀도발도를 안은 그의 부인으로 추정되는 젊은 여자가 그려져 있는데, 이를 보면 공작의 아들에 대한 사랑이 극진했음을 알 수 있다. 귀도발도는 아버지의 죽음 후 이탈리아 도시 국가 간의 다툼과 전쟁에서 살아남았으나, 니코틴 부족으로 생기는 병인 펠라그라로 36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한다.

김은혜(벨리시넷)

교 구 소 식

군중주보회 회원들을 위한 미사 - 성체 성별 대축일: 칠성 김상기 신부

◆ 교구장 동정

- 주교좌 국군중앙 성당 미사
 때: 6월 19일(주일) 11:00
- '사제 성화의 날'
 때·곳: 6월 23일(목) 10:30, 자운대 성당
- 2022년 군중장교 임관식 / 미사
 때·곳: 6월 24일(금) 11:00, 남성대 성당

◆ '군중의 시간' 안내

- 때: 주일 오전 8시 ~ 9시
- 평화방송 라디오(105.3Mhz, 서울)
- 군중교구 홈페이지와 평화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 많은 청취 바랍니다.

“성체성사로 기쁨나는 삶” -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요한 6,57)